

저의 가족은 아내 정혜영 선교사와 백일이 갓 지나 선교지로 나온 딸 예본, 선교지인 헝가리에서 태어난 예니와 아들 진석이 있습니다.

1997년 신대원 재학 중 총회파송 견습선교사로 동구라파 헝가리를 1년 동안 선교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소련 연방하에 있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를 전환한지 얼마되지 않은 때에 그 땅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학업을 잠시 접어둔채 헝가리로 견습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견습선교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한가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헝가리 사회에서 인간적 대우는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조차 따돌림과 접촉해서는 아니될 최하층 집단인 쥘시들의 삶을 보면서 헝가리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들의 현실을 보면서 저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하는 부담감을 떨칠수 없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한국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회의 파송을 받아 선교지인 헝가리로 다시 오게 되었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선교지인 헝가리에서 헝가리 개혁신교단과 현지인들, 그리고 한인들을 섬기며 선교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2012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 저희들은 쥘시 학교와 쥘시 마을을 방문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쥘시학교와 마을을 섬기는 일은 저들 학교와 쥘시학생들에게는 설레임과 행사를 준비하며 기다림으로, 선교사에게는 그들을 생각하며 말씀과 선물을 준비함으로 기다립니다. 낮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쥘시학교와 마을은 저희들로 인하여 손님의 차원을 넘어서 서로에게 반가운 친구를 맞이하는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학교 정문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어설피고 낡은 철문으로 된 학교에 들어서면 학교를 관리하는 선생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문을 열어줍니다. 일상의 순서처럼 교장, 교감 선생님과 짧은 면담을

가집니다. 이번 일정에 예기치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근황을 묻고, 이어질 순서에 대하여 나누는 가운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급한 도움의 요청에 나가보니 이미 사건은 일어난 후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복도를 지나던 중 주먹으로 창문을 쳐서 창문이 깨어짐과 동시에 손에 유리조각이 박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의를 물었지만 학생은 태연스럽게 다른 학생이 밀치는 바람에 창문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일들은 학교에서 비밀비재했기에 선생님들은 설치된 CCTV 필름을 확인하여 학생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금방 알아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선교



사는 깜짝 놀라 오늘 복음 전파하는 시간에 사탄이 방해함을 느끼며 맘을 졸이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침착하게 신속히 대처하여 학부모에게 전화한 후 병원으로 보는 것 아닌지요. 선생님들께서는 학교에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쥘시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를 목격하며 안타까움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다음에 이어질 복음전파에 마음을 옮깁니다. 서둘러 전체 학생들을 모으고 강당 겸 체육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그마한 공간으로 학생들이 이동하였습니다. 약 150명 가까이 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이면 그야말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



〈 헝가리 정재화선교사 〉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날지 모르기에 진행되는 동안에 학생들이 잡담하거나 떠들지 못하도록 신경을 곤두세우며 학생들에게 계속하여 주의를 주시는 것이 마치 유치원 학생들이나 어린 학년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어느 나라든 동일하지만, 선교사의 눈에 비친 것은 쥘시학생들은 이보다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발표한 다음 부활절 메시

다. 보통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장난감이나 갖고 싶었던 선물을 부모님들이 선물하지만, 이곳의 아이들은 그 어떠한 것도 원하는 바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이지요. 저희들이 준비한 작은 부활절 초콜릿이 담긴 선물세트는 쥘시 아이들의 얼굴은 물론 마음까지도 환하게 만들게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게 보였는지 서둘러 돌아가 부모님께 자랑하려는 모습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연가꾸 하는 학생



지와 복음을 제시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고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따라하고, 축도까지 따라하려고 하는지.....순진하고도 장난기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보기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냉대와 멸시에서 벗어나 쥘시사회를 변화시키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들었습니다. 부활절은 이곳에서는 아주 큰 명절입니

들을 보며 오히려 저희들이 더 많은 것을 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을 반성하게 합니다. 사랑을 주고, 나누는 것은 앓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과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하늘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느끼며 축하하는 자리가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 또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서서 함께 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 피게 될 것입니다.

2012년 해외선교분과 비전트립 교육



170여분의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베트남을 비롯하여 케냐, 키르키즈스탄, 중국 등 4개국에 하나님의 사람을 품고 비전트립을 떠난다. 의료, 집짓기 등 다양한 사역을 할 예정이다. 해외선교분과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해 4회에 걸쳐 비전트립 교육을 준비하였다. “비전트립의 현황과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한

국형 선교개발원의 조명순 선교사가(5월13일, 6월10일), “타교회 비전트립 사례와 북한 접경 지역 선교”에 대해 영락교회 선교부 심규한 목사가(5월20일), “비전트립 팀 위기대처”라는 제목으로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박재범 목사가(6월3일) “비전트립팀 건강관리”에 대해 이기현 주님의교회 내과 전문의가(6월10일) 각각 강의를 맡아 수고해 주신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참가자들이 비전트립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룸으로 참가자들이 효율적으로 준비함과 동시에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위험지역에서의 위기상황들의 사례를 공부함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손영익 안수집사>

“예수님을 품으려는 마음”_25사단 신병교육대 세례식에서



6월 호국의 달, 보훈의 달에 25사단 관측소에서 바라보는 DMZ 건너에 있는 북녘땅은 유난히 초록의 푸르름이 더욱 진해 보인다. 집을 떠나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시작한 우리의 아들들 6월 2일 (토)에 주님의교회 군경선교팀에서는 25사단 신병교육대 ‘사랑의교회’에서 160여명의 훈련병들에게 세례의식을 드렸다. 예배

를 드리는 신병들 모습에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품으려는 마음을 느껴본다. “지난날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며 죄를 짓지 않기로 약속을 한다.”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마음속에 맺히는 말들과 행동들, 꼭꼭 챙겨서 수를 놓듯이, 베를 짜듯이 그렇게 그 시간들을 다듬어가기를 원한다’는 뜻이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훈련병들의 갈급한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의 인생에 늘 함께하기를 함께한 우리들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지금 지나가는 군생활의 모퉁이에서 참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을 누릴 수 있길 바라며, 자대배치를 받고 늘 그렇게 충성된 마음으로 멋지고 행복한 시간의 마주침을 누리고 세례 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복된 군생활을 적응하기’를 바라며 귀한 형제들 세례받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2012년에는 5번의 군선교 세례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우님들의 많은 관심도 바란다. <신형섭 기자>

* 성경_한자로 풀어보기

弟子化 使役(제자화 사역)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31)

辭典的 意味(사전적 의미)

弟子(제자):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門徒(문도)

使役(사역): 남을 써서 일을 시킴.

文字的 意味(문자적 의미)

★弟(아우 제. 제자 제): “끝이 갈라진 창”을 뜻하는 丫(가닥 날 아)에 弓(활 궁)을 결합 하여 “끝이 갈라진 창과 활을 만들어 병정놀이하는 어린자가 아우이다”라는 글자가 되었다.

★子(아이 자. 아들 자): 상형문자로써 “몸집에 비하여 큰 머리와 꼬부런 다리를 한자가 아이이다”로 풀이하는데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나타낸다. 뒤에 “아들, 자식, 사람, 알, 존칭어, 당신, 접미사”등의 의미가 추가되었다.

★化(월 화): 人(사람 인)의 변형체 亻(사람인 변)과 “비수 또는 등 굽은 늙은이”를 상징하는 匕(비수 비. 늙은사람 인)이 결합되어 “사람이 늙으면 변화 된다”는 의미를 만들었다.

★使(하여금 사. 부릴 사): 人(사람 인)의 변형체 亻(사람인 변)과 “벼슬아치”의 뜻이 있는 吏(관리 리)를 합쳐 “백성 된 사람들을 벼슬아치가 부린다”는 의미가 되었다.

★役(부릴 역): “많은 사람. 견다”는 의미를 지닌 彳(자축거릴 척. 중인 변)에 “몽둥이나 무기”를 뜻하는 殳(몽둥이 수)를 결합시켜 “많은 사람을 몽둥이로 위협하며 부린다”는 의미를 만들었다.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교회소식 이모저모

4교구 안나구역 봄나들이



5월 24일(목) 4교구 안나구역 22명은 서울을 벗어나 문경새재를 다녀왔다. 문경새재에서 느끼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먼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던가? 석쇠고추장 불고기 정식과 고향의 향취가 묻어 있는 더덕구이와 된장찌개가 어우러진 식단이 우리의 식욕을 끌어내는데 충분하였다. 순환차를 타고 드디어 공원에 도착했다. 공원단지는 넓고 볼만한 오픈세트장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것을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듯 새로운 경험이었다. “오늘은 내가 임금님! 중전!” 옛날 임금님과 중전의 옷을 입고 용상(龍床)에서 기념사진도 찰칵 찍었다. 문경에서 가운으로 가는 중에 문경석탄박물관 및 가운 세트장으로 고고(go go) “높은 330m의 산등성이 어떻게 오를까?” 고민을 했지만, 모노레일카가 우리를 반갑게 기다리고 있었다. 10여분쯤 올라가니 고구려시대의 세트장과 가운일대의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이 있어 가슴이 확 트이고 아름다운 자연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처음엔 사진 찍기를 거절했던 권사님들도 귀여운 표정으로 기념사진도 찍기 시작했다. 짧지만 많은 소중한 추억을 담고 가게 되어 뿌듯함이 남았다. 오후 5시30분경 드디어 서울에 도착, 서로서로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고 복된 시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안나구역은 75세부터 92세까지 교회 어르신들 구역으로 안나1안나2구역으로 나뉘어져있다. <최현정 집사>

중보기도팀 6월 월례회 “기도로 내 손들게 하소서”



6월 중보기도팀 월례회가 6월 7일 (목) 에니엘리스홀에서 중보기도자 140여명이 참석하여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드렸다.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 하고 기도로 우리들 손들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였다. 배현성 목사는 누가

복음 17장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사망 속에서 ‘무익한 종, 을 비유하여 우리가 꼭 하여야 하는 사역으로 다른 사역보다 이 것만 전부가 아니고 균형과 감각으로 겸손히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하며 “우리들 모습대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사역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두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예배 후에 중보기도 양육클래스를 수료한 12명 새로운 사역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신형섭 기자>



|오늘의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_ 마 16 : 18

통 권 제 304호
발행인 담임목사 박원호
편집인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발행처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2012년 6월 10일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_ 롬 12:15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토요일 오후 1시20분, 초여름 신록같이 예쁜 아이들
지난 6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주님의교회 건물 2층 모퉁이 작은 방에 상자가 하나 배달되어 왔다. 은박지로 곱게 싸 김밥이다. 이어서 또 다른 상자도 도착했다. 이번엔 빵이다. 소보루빵, 모카크림빵, 초코소라빵 등이 가득 들어 있다. 마침 ‘기초영어’ 반 수업을 마치고 인사하러 들른 박민규(가명, 1학년)군에게, 김밥 한 줄과 빵 하나가 안겨진다. 곧 이어 여학생

려 있다. “과외교사로 인기가 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재능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침 반가운학교가 출범하기에 과외교사의 삶을 내려놓고 동참했습니다.” 삶의 일부를 십일조로 드리는 헌신의 삶은 그이만의 몫이 아니다. 내년이면 칠순인 안상호 집사도 ‘중학영어’를 가르치며 여생의 일부를 헌신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했지만 아직도 그이의 목소리는 청년처럼 맑다. 가족과 함께 단란



플루트, 바이올린, 연기와 같은 예체능 과목과 논술 지도에 이르기까지, 학생이 있으면, 교사를 수소문해서 반을 만든다. 물론 일체 무료이며, 간식도 제공한다. 당연히 어려움이 많다. 장비도, 교육 공간도 부족하고 교사도 늘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가장 많이 느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손 권사의 말이다. “약기가 부족해서 기도를 하면, 여기저기에서 기증을 하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수학교사가 필요해서 걱정을 하면, 때마침 ‘저도 봉사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수학 전공 선생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요.” 학생들의 수준이 서로 달라서, 원하는 수업시간이 서로 달라서 반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무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때로 학생들이 가볍게 여기더라도, 이 사역자들은 섬기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꼭 안아 주곤 한다. “저한테 반가운학교는요, 음, 또 하나의 집이에요.”라는 학생의 말 한마디에, 그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인터뷰를 거절하거나, 이름 밝히기를 꺼렸다. 그이들의 이 소박한 겸손이 또한 참 은혜롭다.

<편집부>



삶의 십일조 바치는 헌신의 교육 _ ‘반가운학교’를 섬기는 사역자들

주님의교회의 곳곳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전 4:10)는 말씀을 따라,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함글함글에서는 ‘섬김의 기쁨’으로 낮은 곳으로 향하는 이 숨은 청지기들을 찾아 소개합니다. 그 세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청소년교육을 담당하는 ‘반가운학교’ 편입니다. - 편집자

세 명이 초여름 숲속 새들처럼 재잘거리면서 들어온다. 한시 반부터 시작하는 ‘중학 수학’ 반 학생들이다. “난 모카크림빵이 좋아요. 넌 뭐 먹을래?” 학생들은 스스럼없이 빵을 골라 가지고 수업을 받을 교실로 간다. 창밖의 신록처럼 밝고 구김이 없다. 빙그레 웃으며 소파에 앉아 이들을 바라보던 박철호 선생이 말한다. “다들 참 예쁘죠?” 그는 전문 프로그래머이며, 반가운학교의 과학 교사이기도 하다. 한시 반부터 시작하는 ‘중학과학’ 반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토요일 오후에만, 한 시간 켜 세 반을 가르친다. 그에겐 그래서 주말 오후가 없다. “초기부터 한동안 총무 역할을 맡아 애를 많이 썼어요.” 반가운학교를 섬기는 손천숙 권사의 말이다.

하나님 주신 재능, 삶의 십일조를 바치는 날들
반가운학교를 빛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여쁜 아이들 이라면, 가장 소중한 재산은 말없이 헌신하는 교사들이다. 현재 가장 많은 시간을 헌신하는 교사로 ‘영어 문법’을 담당하는 이미영 권사를 빼 놓을 수 없다. 그이는 매 주일, 열 네 반을 담당한다. 유명 사립학교의 교사 경력에, 한때 고액 과외교사로 명성을 날렸던 그의 실력은 두루 입소문이 나 있어서, 대기 학생들이 밀



한 주말을 보내야 할 시간에 교무실을 지키면서 몇 년째 말없이 궂은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는 이은영 권사 등, 반가운학교를 위해 30여 명의 사역자들이 헌신하고 있다.

반가운학교, 지역 사회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반가운학교는 교회 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반갑게 맞아서, 함께 사랑으로 보듬어 키우는 것이 반가운 학교의 뜻”이다. 반가운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과 같은 학교 교과목부터 프랑스어, 일어와 같은 외국어 교육, 피아노, 성악,

주간 목회력

<비전트립 4주차 교육>
-6.10(주일) 오후3시 / 소예배실
<피택자수련회>
-6.15~16 오후4시 / 필그림하우스

<2012 유학생 특별세례식>
-6.10~(3주간) / 1층 데스크신청
<교회창립기념 초청 오르간연주회>
-6.24(주일) 오후4시 / 본당

<여전도회 연합수련회>
-6.14(목) 오전10시 / 중예배실
<킹덤비전영어캠프 봉사자모집>
-보조교사,간호사,사무보조,주방 등



릭 워렌(Rick Warren) 목사님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목사님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소재로 주님의 교회에서 40일 간의 집중적인 수련회를 가졌던 기억이 어제와 같습니다. 이 기도문은 호주, 시드니의 힐송교회에서 있었던 힐송집회(Hillsong Conference)를 주도하신 워렌 목사님께서 집회를 마치면서 집회 전원과 한 목소리로 통송한 선언 기도문입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형 스크린에 떠오르는 선언문을 힘차게 읽어왔습니다.

오늘 나는 경계선 밖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말로만 미루적거리는데 지쳤고, 이제는 망설임을 끝내야하겠습니다.
 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정이 났고 나의 결심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땅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찬양하고, 그분의 품성을 닮도록 연마하고,
 그분의 가족에 참여하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보이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과거가 용서 받아왔고, 내 삶의 목적이 있으며 하늘에는 거처가
 마련되어 있으니, 미온적 삶, 하찮은 생각들, 사소한 잡담, 분별없는 행동,
 쓸데없는 후회, 상처 입히는 분냄, 믿음 없는 염려 등에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찬미하고, 성숙해 가며, 사역에 동참하고,
 그분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명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의 삶은 다음에 올 삶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재물 보다 예배를, 나 보다 우리를, 인락함 보다 품격을, 직분 보다 봉사를,
 그리고 소유와 신분과 향락 보다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나는 문화에 현혹되지 않고, 남의 비평에 좌우되지 않으며,
 칭찬에 유발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들로 좌절하지 않고,
 유희에 무력해지지 않으며, 악령에 시달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변이나 내 옆을 달려가는 사람들에 한 눈 팔지 않고 나의 목표만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지치게 될 때라도
 하던 일을 철회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도,
 선서를 되돌리지도,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로지 앞으로만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께 인도 되고, 목적에 이끌리고, 사명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고 경주를 끝낼 때 까지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얻어진 우승배이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매일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을 후하게 나누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제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예!’라고 대답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느 곳으로 저를 인도하시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또 무슨 일이든지,
 주님, 진정 무슨 일이든지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고,
 마지막 그날, “잘 해냈도다. 선하고 충직한 자여.”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영구히 지속될 잔치를 벌입니다.

<유희(Youtube 에서) _ 번역 : 최종업 권사>

오(吾).월(越).애(愛)

_ 청년부 데이트스쿨

청년부에서는 5월3일부터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5주의 과정으로 데이트스쿨을 열었습니다.

결혼예비학교가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을 위한 과정, 싱글매칭학교가 만남을 갖길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과정이라면 데이트스쿨은 청년기를 지내며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이성과의 관계를 성경적이고도 건전한 방법으로 세워가는 것을 돕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만남을 가지고 있는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오해와 상황들을 솔직담백하게 나누며, 어떻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주는 창세기 24장을 바탕으로 하여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할 것이며, 만남을 갖기전에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서로 물어야 할 질문들과 돌아봐야 할 것들에 대해, 둘째 주는 남녀의 차이를 ‘차이 이끌림 그리고 대화’라는 주제

로 무엇에 의해 남녀가 이끌리며 선택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그리고 대화의 차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세 번째주는 데이트와 스킨십 그리고 성(sex)이라는 주제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성(sex)에 대한 관점이 변하였는지,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성행동의 차이에 대해 친밀함과 관련된 주제로 함께 나누었으며 네 번째 주는 기혼커플 두쌍을 초청하여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배우자에 대한 확신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토크쇼 형식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만남이 있으나 헤어짐이 있을 수 있고, 고백이 있으나 거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슈를 가지고 그 구체적인 사례와 상황을 짚어가며 헤어짐과 거절 또한 하나님께서 하려하시는 섭리 안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연애가 마켓팅 수단화 되고 최대한 외적인 조건과 능력을 갖추수록 멋진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잘못된 사랑관에 빠져 있다던가 혹은 만남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갖기에는 요구되는 조건들과 주어지는 현실기운데 너무나 분주한 채 젊음의 시간



을 흘려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는 것이 젊음의 특권일진데 데이트 스쿨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찾기를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이론과 발견들을 나누며, 사랑을 잘 가꾸기 원하는 열망과 거룩한 소망이 더 커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찾아가고 그 사랑을 ‘나를 뛰어넘는 사랑’ ‘오(吾).월(越).애(愛)’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청년부 서재욱 전도사>

‘하나님에 대한 동경’ _유기영 목사

주님의 부르심이 언제였을까? 목회자의 부르심이 언제였냐는 질문에 대해 남에게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자랑할 만한 신앙고백과 간증, 기적등 이것 저것도 찾을 수 없는 지나온 과거의 아주 평범한 삶이었다고 생각된다.

5대째 신앙생활을 해 온 집안으로 2남2녀중 막내이다. 온 친척, 가족이 섬기던 지역교회는 100여년 가까이 되었고 시골임에도 지역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다. 자연스럽게 교회와 집, 학교라는 틀 안에서 주로 생활하게 되었다.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아버지덕분에 교회생활을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리더십이 만들어지고 여느 자녀들 처럼 부모님께 기쁨이 되려고 했던 나름 소심한 시골 소년이었다. 이런 와중에 목회자가 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아주 우연이며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고 있는 중이라 하겠다.

초등학교때까지 검정고무신을 신고 신장으로 길을 다니고 모래로 두꺼비 집을 지었던 기억, 독초를 뺀 사넛물에 풀어 물고기를 잡던 일, 뒷동산에 아지트 만들어 놓고 칼싸움놀이에 빠져 해가 지는 줄 모르다가 어머니의 고향에 겨우 내려오곤 했던 기억, 찔레를 꺾어 먹고, 보리피리 만들어 불고 다니고 탕자나무 가시로 다슬기를 뽑아 먹었던 생생한 기억들이 여전히 나를 즐겁게 하는 소중한 추억들이



다. 굳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직접적 계기를 찾는다면 이러한 소중한 추억들 속에 순수하게 자리 잡은 하나님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다.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열정과 욕망이 결국 목회자의 길을 걷게 만들었다. 신학이라는 공부가 목회와 꼭 연결되는지도 잘 몰랐고 순전히 신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궁금증과 자아실현 측면에서 시작한 이 길이 목회자의 길에 서 있게 된 것이다. 사실 내가 아니어도 목회자는 많이 있으며 굳이 나만을 통해서 목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없다. 지금도 가끔 목회자를 그만 둔다면 뭘 할 수 있으며 뭘 하고 싶은지 좀더 일찍 은퇴한다면 새로운 삶의 시작을 무엇으로 할지 많은 생각 중이다.

부르심의 길에 서서 _06

여전히 세간에는 목회가 전문직이나, 천직이나 라는 질문에 여전히 갑론을박중이다. 천직이기에 고개 뺏뺏히 겁스까지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모두 하려는 목회자가 있으며 전문직이기에 특별기술과 경험을 얻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모임과 세미나를 통해 남들보다 더 전문성을 갖추려고 애쓰는 목회자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둘 다 맞다고 보다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목회철학이 있다. 언제든지 소위 천직을 무엇에 의해서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며 나보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최소한 아주 최소한 목회자는 전문직처럼 기업윤리와 직업윤리만이라도 갖추며 목회해야 한다는 철학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에게 있어서 만큼은 진행 중이다. 생이 다하는 그 날까지 부르심에 진지한 응답과 바른 순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이런 과정 가운데 점점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즐거움은 나에게 있어서 참 소중하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삶의 기쁨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모습이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부르심! 이러한 물음에 당당히 고백할 수 있을까? 기대와 염려가 공존하는 요즘이다.

땅끝 편지 _07

사랑하는 제자 R에게... _반기운 학교

푸름이 점점 짙어가는 구나.

변화무쌍한 너희 같은 변덕스러운 5월을 보내고 한해의 절반인 6월이 되었네.
잘 지내고 있지? 너를 만난 것도 벌써 4년이 되어가는 구나.

학교 상담실에서였지? 문을 열고 들어서던 너를, 그 첫 모습이 기억난다. 선생님이 전달 해 주신 학년, 반, 이름 그리고 한줄 코멘트를 들고 널 기다렸는데 난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던단다.

그래, 난 힘들다고 했어. 삶을 내려놓고 싶다고. 변명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시도도 몇 번 했었다는 말도 했지.

널 위해 해 줄 수 있는 건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는 게 다였어. 그리고 조심스럽게 반기운 학교로 널 초대했었지. 공부에 관심도 없고 의욕도 없던 네가 오리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몇 주 뒤에 네가 왔지. 그 때 난 마음속으로 ‘이제 됐다’ 라고 생각했단다. 이젠 그 분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을 믿었으니까. 물론 그 이후로도 난 많이 힘들었어.

길이 많으니까 돌아갈 수도, 헤맬 수도 있겠지만 너의 길은 유난히 험하더구나. 그래도 돌고 돌아 조금씩 네가 잘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걸 볼 수 있었어. 토요일 오후면 교회 어디에선가 애쓰며 노력하는 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

얼마 전 무대에 있는 널 보았을 때 몽클했단다. 그리고 희망을 봤어.

너의 손끝에 강한 힘도 느껴졌고 널 통해 무언가 이루실 그분의 손길도 전해졌단다. 교회2층 반가운 학교 방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너를 위해 기도하단다.

너의 뒤에 네가 잘 될 것을 믿고 지지하는 우리 샘들이 있음을, 그리고 그 뒤엔 더 큰 분이 계심을 잊지 않길 바래.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라고들 하지? 그런데 김난도 선생님은 ‘부러워하지 않으면 지는 거다.’ 라고 하시더라. 나는 ‘그 말이 맞다.’ 라고 생각해.

마음껏 부러워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 로 너의 젊음에 토 달기보다는 너 보다 좋은 환경, 좋은 부모, 훌륭한 재능을 부러워하며 너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걸 뛰어넘는 거지. 그게 진짜 이기는 거거든.

울 여름은 덥다지? 하긴 예고된 더위야 여름이니까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기상이변은 당황스럽지. 그래도 폭우나 우박이 와도 준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너의 인생에 기상이변은 틈틈이 찾아올 거야. 하지만 그것을 막아낼 준비만 하면 문제없어. 너의 에너지, 너의 재능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만 있다면 넘치는 물쯤은 배수구로 술술 흘러가지 않겠니?

반기운 학교에서 널 만나면 늘 반갑단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뒤 멋진 샘이 되어 후배들 앞에 서 있는 너의 모습도 그려본단다.

울 여름 잘 보내자. 너의 그날을 위해.

<2012년 6월 첫날. 은주샘이>

2012년 함글함글에서는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표어에 기초하여 땅끝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고백하고 치유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hamletter@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편집회의를 거쳐 실어드리겠습니다. _ 편집자

교통법규는 우리의 약속, 정문앞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었네요!

십년이상 한곳에서 주차안내를 했지만 인도를 못할 때도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한 성품으로 주일예배에 오고 가는 성도들을 항상 기쁘게 맞이하지 못했던 점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정문신호등 설치로 아직도 어려움을 느끼시는 교우들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주차문화를 세워가는데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정신여중.고 정문 앞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정문앞 도로(8m)에 교통신호등(등화)이 설치되어 모든 차량은 정문을 빠져나갈 때 우회전을 하여야 차량 흐름이 원활하게 됩니다. (좌회전을 할 경우 직진신호와 횡단보도 신호에 막히게 됨) 종전 좌회전하신 분들은 다소 불편한 점이 되겠지만, 함께 질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일대(정신여중고, 아주초·중)가 청소년 및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아주초·중학교 앞에도 같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정신여중.고등학교 정문 신호는 3색등으로 적색(20초), 황색(10초), 녹색(30초)으로 모든 차량이 통제됩니다. 횡단보도(건널목)는 적색(40초)과 녹색(20초)이 주행신호와 반대로 켜지며 인도를 안전하게 도와줍니다.

▶ 비보호 좌회전 위반 시 처벌내용

벌칙위반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5조)	차종별 범칙금액(원)			
		승합	승용	이륜	기타
신호지시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한 신호나 지시	7만	6만	4만	3만

※ 비보호 좌회전이 설치된 곳에서도 사고 발생시, 10대 중과실 사고로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위반으로 처벌,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의 개념은 사고발생시 사실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2. 신호체제에 따른 우회전시 지혜롭게 인접도로와 연결과 우천 시 절차

정신여중고 정문에서 아주초·중학교 정문까지(800m거리) 도로 중심축으로 좌측은 아시아선수촌아파트단지 있고 우측은 우성아파트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단지를 끼고 좌회전하면 강남역과 잠실역 및 성남지역으로 갈 수 있고, 우성아파트단지를 끼고 우회전하면 뚝방길로 접근 가능하여 올림픽도로 및 강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특별행사나 예배시간이 지연될 경우(2-3부 해당)시 행동요령입니다.

예배를 위해 우성아파트 방향에서 온 차량은 정문 앞을 통과하여 아시아공원을 끼고 4번차레로 우회전후 아주중학교 정문에서 직진하여 교회정문 코스(A), 반대 방향으로, 잠실 운동장 방향에서 온 차량은 우성아파트 4번 차레로 우회전 하면 교회 정문 코스(B)인 2방법이 있습니다. 늦어도 같은 방향으로 1~2회 정도 반복해서 돌면 예배자 차량이 전부 출차되어 쉽게 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서 혼잡한 시간을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천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학교 운동장 주차장을 이용못해 매우 부족합니다.

여의치 않아 차를 가지고 오실 때는 예배시작 전 (2-3부시 예배시작20분전) 까지 일찍오 시거나 그 외 예배 시작 전.후오신분은 인근 종합 운동장내 야구장 주차장이나 송파탄천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교회 외곽도로 주.정차는 주말이나 평일 언제나 건인 하고 불법주차타지름 때므로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지연 및 정문 혼잡 시 예배 진입차량 행동절차:예) 2예배중 3부진입차】



3. 성숙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의사항과 실천

- ▶ 교회 내(학교내) 주행속도는 성전 주변은 시속 5km, 기타지역 시속 20km 이내로 서행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다양한 성도님이 자유롭게 뛰 어다니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 모든 통행은 사람 우선이며, 건물과 화단 앞 주차 시는 전면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진입 시, 우회전(좌측)하며, 진출 시 성전앞도로(우측)를 이용하고 방향 전환 시에는 방향지시등을 이용합니다.
- ▶ 모든 차는 교회스티커를 좌측 유리창이 잘 보이게 부착합니다.
- ▶ 주차는 삼거리, 성전앞, 장애인 주차장은 불허합니다. 주차우선순위는 주차장 진입순서대로 주차합니다.
- ▶ 주통로상 주정차를 제한하지만, 주차 시는 타이어를 정렬상태에서 주차브레이크를 풀어놓고 예배 후 바로 차를 이동합니다. 1· 2부 봉사자나 성가대 등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 때에는 교사나 성전, 체육관 주변에 주차합니다.
- ▶ 운동장 주차는 넓고 용이하나, 학교측 요청에 따라 주차제한지역과 일방통로상 주차진출입로는 주차를 금하며, 주차는 안쪽(서쪽) 뒷줄(동쪽)부터 주차대간 거리를 고려해 주차합니다.
- ▶ 차내에는 안전장치를 하고 혹 어린이나, 애완동물을 방치해두지 않으며, 귀중품을 두지 않습니다.
- ▶ 주정차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주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주차안내봉사자에게 알립니다. 혹 주변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고, 급한 상황 시에는 상대 차량에 본인의 연락처를 남깁니다.



끝으로 교회에서의 서행, 방향 지시등 켜기, 우회전하기 및 주차스티커 부착 등의 주요 주차문화를 세워가는 성숙한 주님의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신광이 안수집사(주차안내부) >